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남·녀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노 명 인

남·녀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

지도교수 박영숙

이 논문을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노 명 인

노명인의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정 재 원



부 위 원 장

방 경 숙



위 원

박 영 숙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남생도와 여생도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의 관계를 분석한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육 해 공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생도 총 423명이며 자료 수집은 자가보고로 양성평등의식 4점 등간척도 40문항, 자아존중감 5점 등간척도 10문항, 집단자존감 5점 등간척도 16문항, 일반적 특성 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검증, F 검증, 피어슨 상관계수와 사후 Scheffe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여생도의 평균이 133.59점으로 남생도의 평균 118.88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양성평등의식의 총 4개 하위영역인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에서 여생도가 남생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양성평등의식은 여생도와 남생도 모두 학년, 출신 고등학교, 총 가족 수, 부모와 조부모 및 이성형제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가졌든 여생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남생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양성 평등적 태도인 경우에 양성평등의식 점수가 평균 120.26점으로 남성 중심적 태도(115.11)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p<.038$).
4. 여생도에서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0.33($p<.001$),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은 0.65($p<.001$), 양성평등의식과 집단자존감은 0.2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남생도에서도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은 0.24($p<.001$), 자아

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은 0.49(<.001), 양성평등의식과 집단자존감은 0.18(<.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여생도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생도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생도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며 성 차이를 인식하는 교육과 양성평등적인 문화 형성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한다면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어서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사관생도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사관생도, 양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 집단자존감.

학 번 : 2012-22840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용어의 정의	4
II. 문헌고찰	6
1. 양성평등	6
2.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의 관계	10
III. 연구방법	15
1. 연구설계	15
2. 연구대상	15
3. 연구도구	16
4. 자료수집방법	17
5. 자료분석방법	18
IV. 연구결과	19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19
2.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2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22
4.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의 관계	25

V. 논의	26
VI. 결론 및 제언	29
참고문헌	31
부록	36
Abstract	42

표 목 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0
<Table 2> Differences in Gender Egalitarianism by Gender	21
<Table 3> Differences in Gender Egalitarian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24
<Table 4> Correlation of Gender Egalitarianism,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2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군대 진출은 전쟁양상의 변화와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사관생도, 여대생 ROTC, 여군의 평화유지군 파견 등으로 여성의 군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김엘리, 2012). 정부의 여성 인력 활용정책과 국방 여성정책 실행으로 여군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군의 위치가 제도적 측면에서 많이 향상되어 왔다(김엘리, 2012). 그러나 남성이 주류인 군대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가부장 중심 문화가 팽배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신은봉, 조성준, 김창희, 류지명, 2004). 군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남성 군인은 여군의 임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을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군은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군인의 여군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김동원, 2007; 독고순, 조영진, 신동현, 김윤정, 2005). 이처럼 남녀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군 조직에서 업무능력 평가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선입견이 관여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 조직 구성원은 남·녀의 성 차이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군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군에 관한 연구는 여군의 인력 활용 및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몇 편의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남군이 여군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은봉 등, 2004). 그리고 군조직 내에서 남녀가 서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황보주, 2003) 장교들의 양성평등의식은 군의 하부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한다(신은봉 등, 2004, 이동훈, 2002). 같은 맥락에서 장교 양성교육기관에서도

남녀평등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신은봉 등, 2004) 주장하였으나 장교 양성 과정에 있는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미래에 군대 문화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킨다면 앞으로 군 조직의 양성평등문화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생도는 남생도에 비해 학업측면에서는 일관되게 높은 성취를 보였지만, 학교생활 측면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 기준의 체력, 군사훈련 적응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광은, 2001; 김엘리, 2012; 오필환, 김광은, 윤유경, 2002). 또한 여생도는 입교 초에 비해 학교생활을 해나가면서 여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이 약해짐을 보였다. 이러한 여생도의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체력적인 열세문제도 있지만, 여생도에게 쏟아지는 지나친 관심과 배려로 인해 남생도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정서가 증대되어 있고, 남성중심의 사관학교 문화가 여성으로 인해 단절되었다는 생각으로 남생도가 여생도에게 비우호적 태도를 갖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김엘리, 2012; 오필환 등, 2002).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관학교에서는 교육실시 대원칙은 고수하되 부분적으로 남·녀 모두를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여생도의 훈육을 전담할 여군 장교와 여성 상담교수를 보충하였으나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김엘리, 2012). 이러한 제도적 장치나 개선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남생도와 여생도에게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관학교의 생도생활은 24시간 계획된 일정 속에서 개인보다는 단체를 우선시 하고, 연중 밀도 높은 학사일정과 강인한 정신력, 체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많은 인내와 극기를 요구하며(조순영, 2004), 이를 대처하고 극복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이상호, 2003).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변수로(이지영, 2008)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른 성을 존중하는 양성평등의식과 정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2006; 김신애, 2004; 우민정과 이은영, 2011; 조정원, 1999; Bem, 1974). 그리고 집단주의를 추구하고 소속집단을 중시하는 사람인 경우에 자아존중감과 집단 자존감을 구별해야 한다(Luhtanen & Crocker, 1992). 즉, 집단의식이 강한 군대 같은 조직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다르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느끼는 구성원 의식과 그 집단에 부여한 가치와 관련된 것을 총칭하는 집단자존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생도생활 또한 군대생활과 같이 개인의 욕구를 유보하고 집단 목표를 우선시 하므로(김광은, 2001) 집단자존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알아보고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고 바람직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남녀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하고,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집단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진정한 인간존중과 타인과의 공존의식을 갖춘 사관생도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관생도의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남녀 사관생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남녀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은 여성, 남성의 능력 및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적 권리와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지 않는 태도이다(한국여성정책개발원, 1999).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개발원(1999)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로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성장을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을 전병제(1974)가

변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집단자존감

집단자존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이다(Tajfel & Turner, 1982). 본 연구에서는 Luhtanen과 Crocker(1992)이 개발한 것을 김혜숙(1994)이 변안한 집단자아존중척도를 김명아(2010)가 수정 보완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양성평등

우리 사회에서 끝나지 않을 논쟁 중의 하나가 바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20세기 이후 남·녀에 대한 평등요구는 단순한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평등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에는 특히 여성과 남성, 즉 양성간의 평등은 개인적인 평등을 넘어서 집단으로서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성평등은 기준이나 형식 등에서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분화된 성 문화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양성평등의 문제는 계속 논쟁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김용화, 2006). 이러한 다양한 입장의 양성평등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회의 평등이다.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초기에는 이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법적·사회적 대우를 받기 위해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하였다. 기회평등의 주장은 모든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것이다(장동만, 2008). 둘째, 조건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은 자유 경쟁이라는 명분 속에서 형식적인 평등은 이룰 수 있지만 차별적인 조건을 간과하여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시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다. 조건의 평등은 남녀평등을 수학적,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평등의 기본원칙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셋째는 결과의 평등이다. 기회와 조건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결과의 평등이다. 즉 단순히 분리금지나 차별금지의 조치만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성취하기 어려운 집단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다(김용화, 2006). 결과의 평등

은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우대 조치’나 ‘할당제’가 이에 해당되며, 오늘날은 양성평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장동만, 2008).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은 본질적인 면에서 같으므로 자의적, 비합리적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이 처우하되 여성은 모성 내지 신체적인 특성에서 남성과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남성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신은봉 등, 2004).

양성평등의식은 남녀 간의 능력, 기질, 성격 등에 있어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의식을 뜻한다. 그리고 이 말은 남녀가 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은 사고와 습관과 생활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이는 외부적인 홍보 교육과 함께 자발적인 깨달음을 통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자신의 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김양희와 이수연, 2002).

군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다루는 집단으로서,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거나 남성 중심적인 조직 그 자체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다소 희석되어 많은 여성인력이 군문(軍門)에 들어서고 있고, 군도 제도상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여성인력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 조직은 인원 구성비 면에서 절대 다수를 남성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문화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와 같이 한쪽 성에 편향되어 있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다른 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김엘리, 2012). 때문에 군은 남성성을 강조하고 여성에게 차별적인 조직으로 규정되어 왔다. 특히 징병제를 채택하여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대부분 군복무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이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조성숙, 1997). 전통적인 군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군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지상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강인한 남성성의 부각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첨단화된 무기와 전쟁양상은 과거

와 같이 군인들이 직접 접촉하여 총격전, 육박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장비와 무기를 매개로 한 비대면 비접촉전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단순히 강인한 체력으로 상징되는 남성성을 고집하거나 임무 수행에 군이 남녀 성향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김엘리, 2012). 하지만 군대의 뿌리 깊이 박힌 남성중심의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신은봉 등, 2004). 이러한 양성평등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무심코 행했던 성차별과 편견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관행과 관습으로 여겨오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남녀가 평등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의식구조 및 전통적이고 왜곡된 성별 이미지에서 벗어나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신은봉 등, 2004).

우리나라 여군은 1950년 여자의용군으로 창설되어 정훈대대 및 전투중인 각 군단 및 사단, 그리고 첩보부대까지 활용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되고 여군들은 하나의 여군병과로 정착했고, 주로 행정지원 병력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타자특기위주로 운영되어 오다가 군 행정병력 감축논의에 따라 1989년 말 여군병과는 해체되고 1990년에 보병을 비롯한 7개 병과로 전환되었다. 1997년에는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여군사관생도를 모집하게 되었고, 200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첫 정규 사관학교 출신의 여성장교가 임관하였으며, 2003년부터 3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에서도 남녀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황보주, 2003). 그리고 최근에는 여대생 ROTC, 여군의 평화유지군 파견 등으로 여성의 군 참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김엘리, 2012).

여군 및 군내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성통합과 여군 증가 정책이 실행되면서, 군대 내에서 여군의 역할을 모색하는 내용의 연구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특히 1977년을 시작으로 2000

년대에 들어와서 약 5년 동안은 여군을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양성평등의식에 입각한 연구(김원홍, 오정진, 문미경, 김혜영, 2003; 신은봉 등, 2004; 오필환 등, 2002; 한정자, 함인희, 조혜원, 문미경, 김동원, 2004)가 성행하였다. 이 시기는 3군이 성통합 군사훈련 체제에서 여군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때로 주로 남녀 체력문제와 생리적 특성, 남성조직문화에서의 여군의 적응도와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2005년 이후에는 연구 논의의 초점이 여군인력활용문제에서 성평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옮겨졌다. 모성보호제도방안(독고순 등, 2005), 성인지 향상제도 마련(김은희, 이정주, 김현영, 2007), 성인지적 예산분석(강남식, 변신원, 정원영 조연숙, 2009), 군복 관련 성별영향평가(양애경, 김둘순, 김진, 이선민, 강남식, 김철홍, 2009) 등이 그것이다. 그 외 여군들의 위상과 심리적 변화를 분석하여 여군은 비록 직접적인 전투력에서는 불리하나, 국방력 향상과 군 문화 개선에 시대적으로나 군 조직의 효능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김동원, 2007; 홍규덕, 2009)와 사관생도 출신의 여군의 성역할 태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김광은, 1997, 1998, 2007)가 있다. 소수의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남군이 여군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은봉 등, 2004). 그리고 군 조직 내에서 남·녀가 서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황보주, 2003) 장교의 양성평등의식은 군의 하부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신은봉 등, 2004; 이동훈, 2002). 같은 맥락에서 장교 양성과정에 있는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2.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의 관계

1)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은 이성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능력과 잠재력을 동등하게 인정하며 배려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상호존중을 뛰어넘어 진정한 인간 존중과 타인과의 공존의식이 필요하다(조기현, 2004). Berm(1974)에 의하면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양성성을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결합하여 공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양성성인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더 능력 있고 성취적이며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m, 1974).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데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은 무엇보다 자신의 중요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모든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원은진, 2005).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적고, 타인을 존중하여 양성평등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즉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김명희, 2006; 김신애, 2004; 우민정과 이은영, 2011; 조경원, 1999; Bem, 1974).

‘자아’라는 개념은 William James가 처음 사용한 이래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정서(Self-affect)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자아의 개념과 연관된 가치감이다(박혜원, 2002). 즉,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이며,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추정하는 가치나 중요성’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선호와 가치부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아존중감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며,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이다(박혜원, 2002).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한 Rog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며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Rogenberg의 뒤를 이은 Coopersmith(1981)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 즉 ‘한 개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사적인 판단’이라고 하였다(이경나, 1997).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인간의 행동과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더 잘 적응한다(이지영, 2008). 또한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며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고,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필수적 요건이다(Mussen, Conger & Kagan, 196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잘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태도로 인하여 소심하고 억압감을 갖고 있으며, 도전감이나 모험심이 적으며 타인에 대한 의식과 의존심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이지영, 2008). 다시 말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행하는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새로운 과업을 즐기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일반적으로 높은 질의 것이며 장래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의 생각과 능력에 확신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과업이 자신의 것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좋아하지 않으며 기존의 것과 완전한 배경에 집착한다(안순자, 1997).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 잠재력을 성취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

이이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결여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되어진다(정경숙, 2002).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설명, 예측하는 중요한 성격 특징 중 하나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생활과 개인의 자아실현 성취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지영, 2008). 사관학교의 생도생활은 24시간 계획된 일정 속에서 개인보다는 단체를 우선시 하고, 연중 밀도 깊은 학사일정과 강인한 정신력, 체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많은 인내와 극기를 요구하고 있다(조순영, 2004). 그러므로 이를 대처하고 극복하는데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상호, 2003).

2) 양성평등의식과 집단자존감

자아존중감과 양성평등의식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연구는 있으나(김명희, 2006; 김신애, 2004; 우민정과 이은영, 2011) 양성평등의식과 집단자존감 간에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집단주의를 추구하고 소속집단을 중시하는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는 독립적인 자아(independent self)와는 구별되는 상호의존적 자아(interdependent)를 이해해야 한다(Markus & Kitayama, 1991). ‘나’ 중심적인 독립된 자아는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발견하고 이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상호의존적 자아는 타인의 관점과 내가 속한 집단에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노충래, 2000). 생도생활 또한 군대생활과 같이 개인의 욕구보다는 집단 목표를 우선시 하므로(김광은, 2001), 자아존중감과 함께 상호의존적인 자아개념, 즉 집단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집단자존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들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이다. 그리고 집단자존감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멤버십 집단자존감(membership collective self-esteem), 사적 집단자존감(private collective self-esteem), 공적 집단자존감(public collective

self-esteem), 정체적 집단자존감(identity collective self-esteem)이 있다(Crocker & Luhtanen, 1990). 멤버십 집단자존감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소속한 일반 사회집단들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이다. 사적 집단자존감은 한 개인이 이들 집단들의 구성원으로서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이며 공적 집단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단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이다. 정체적 집단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다(Luhtanen & Crocker, 1990). Maslow(1968)는 욕구계층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긍지와 존경에 대한 욕구(esteeem needs),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등 5가지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욕구는 앞에서 제시한 순서에 따라 욕구 발로의 우선순위에서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결핍된 욕구는 충족될 때까지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욕구의 계층에 따라 이동한다. 특정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집단자존감 중 사적 집단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이 소속해 있는 조직이나 집단과 구성원으로서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자신의 조직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다른 구성원에 대한 친화감도 높아져 욕구계층에서 중간단계의 욕구인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자존감 중 멤버십 집단자존감과 공적 집단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이 소속한 집단에서 유능하고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욕구 단계에서 고차적인 존경의 욕구 즉,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거나 남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 될 수 있을 것이다(이창신, 2004)

이러한 집단 자존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in-group)을 평가하고 타인의 소속집단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관점과 통합 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자존감과 구분된다(노충래, 2000). 그러나 집단자존감과 자아존중감은 통합적인 자아 개념의 긍정성 또는 전반적인 자아에 대한 가치 지각에 포함되기 때문

에 서로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Tajfel & Turner, 1982).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비교 대상이 되는 외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Tajfel & Turner, 1982). 일반적으로 개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정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평가하며,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더욱 긍정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신념을 확신한다(김명아, 2010). 개인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집단의 구성원들이 더 좋은 자질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 결과를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는 내집단 편파(ingroup bias)경향성을 가진다(Tajfel & Turner, 1982).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긍정적인 집단자존감을 유지 한다고 한다(김혜숙, 1994;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2004). 하지만 Abrams와 Hogg(1988)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외집단에 비해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의 관계는 개인과 집단 구성원마다 차이를 가질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연구(correlational surve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육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전 학년의 남, 녀 생도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였고, 남·녀 생도 수의 비율 불균등으로 여생도 수에 맞추어 각 학년 남·녀 생도 16명씩 편의표집하여 표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2012년 올해부터 남생도 8명이 최초로 입학하여, 1학년 남생도 8명과 여생도 8명 그리고 나머지 학년은 여생도 16명씩 설문 하였다. 2012년 6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 사관학교에 의뢰하여 연구목적을 알리고 사관생도들에게 실시방법 및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각 군 사관학교의 담당자가 학교 일정과 여건에 맞추어 인원을 임의 배정해주었다. 설문지는 전체 448부 배포하였으나 각 사관학교 별 결원으로 인하여 여생도 16명이 부족하였고, 획일적인 응답과 빠진 문항이 있는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423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양성평등의식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의 측정을 위해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이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1999)를 사용하였다. 양성평등의식 검사는 4개 하위영역인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별 10개 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간편 남녀평등의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설문형식은 응답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유문숙, 박지원, 유미애(201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91 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사관생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3, 5, 8, 9, 10 문항은 점수를 역부호화 해야 하며 자아존중감이 가능한 점수범위는 10-50점이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Rogenberg(1965)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4 으로 나타났다.

3) 집단자존감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uhanen과 Crocker(1992)이 개발한 집단자아존중척도를 김혜숙(1994)이 번안한 것을 김명아(2010)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 하위영역인 멤버십 4문항, 사적 5문항, 공적 3문항, 정체적 4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언제나 그렇다.)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김명아(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또한 Cronbach α .86 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각 사관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2012년 6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양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 집단자존감 측정을 위한 문항과 사관생도들에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 순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각 기관의 관계자 및 사관생도들의 동의를 얻어 각 기관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여 우편과 직접방문으로 회수하였고,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5. 자료 분석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 집단자존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 집단자존감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으로 5%에서 채택하였다.

IV.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조사 대상자인 사관생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전체 응답자 423명 중 여생도가 228명, 남생도가 195명이었다. 사관학교에 따라서는 육군사관학교 128명, 간호사관학교 63명, 공군사관학교 118명, 해군사관학교 114명이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 107명, 2학년 110명, 3학년 101명, 4학년 105명이었다. 출신 고등학교 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생도는 남녀공학 출신이 52.6%으로 여자고등학교 출신 보다 많았고, 남생도는 남자고등학교 출신이 59.5%으로 남녀공학 출신 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사관생도의 가족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 수는 4명이라고 응답한 생도가 65.2%로 가장 많았고, 3명 이하라고 응답한 생도가 15.1%로 가장 적었다.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 양쪽 부모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생도가 92.2%로 편부모나 부모가 없다고 응답한 생도보다 많았고, 사관생도의 93.9%가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이었다. 이성형제는 있다고 응답한 생도가 56.3%으로 이성형제가 없다고 응답한 생도 보다 많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 52.3%, 상 32.6% , 하 15.1% 로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23)

Characteristic		Total (N=423)		Female (n=228)		Male (n=195)	
		n	%	n	%	n	%
Military Academy		128	30.3	64	28.0	64	32.8
Armed Force Nursing Academy		63	14.9	56	24.6	7	3.6
Air Force Academy		118	27.8	56	24.6	62	31.8
Naval Academy		114	27.0	52	22.8	62	31.8
Grade	1st	107	25.3	54	23.7	53	27.2
	2nd	110	26.0	62	27.2	48	24.6
	3rd	101	23.9	54	23.7	47	24.1
	4th	105	24.8	58	25.4	47	24.1
High school	Coed	199	47.0	120	52.6	79	40.5
	Boys'	116	27.9			116	59.5
	Girls'	108	25.1	108	47.4		
Number of family members	less than 3	64	15.1	34	14.9	30	15.4
	4	276	65.3	137	60.1	139	71.3
	more than 5	83	19.6	57	25.0	26	13.3
Living with Parent	both	390	92.2	211	92.5	179	91.8
	single or no	33	7.8	17	7.5	16	8.2
Living with Grand parent	yes	26	6.1	17	7.5	9	4.6
	no	397	93.9	211	92.5	186	95.4
Having Opposite sex siblings	yes	238	56.3	136	59.6	102	52.3
	no	185	43.7	92	40.4	93	47.7
Economic status	high	138	32.6	80	35.1	58	29.7
	middle	221	52.3	121	53.1	100	51.3
	low	64	15.1	27	11.8	37	19.0

2.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성별에 따른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2>와 같다. 양성평등의식의 경우 여생도의 평균이 133.59점으로 남생도의 평균 118.88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하위영역인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 모두에서 여생도가 남생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의 평균 점수는 여생도와 남생도 모두 교육생활, 직업생활, 가정생활, 사회문화생활 순으로 높았다.

<Table 2> Differences in Gender Egalitarianism by Gender

(N=423)

Characteristic	Total(N=423)	Female(n=228)	Male(n=195)	t	p
	Mean±SD	Mean±SD	Mean±SD		
Gender egalitarianism	126.81±14.22	133.59±12.29	118.88±13.07	7.82	<.001
Family	31.62±3.56	33.09±3.33	29.91±3.02	10.21	<.001
Education	32.89±4.82	34.98±3.81	30.45±4.74	10.68	<.001
Society and culture	29.68±3.86	30.96±3.70	28.19±3.50	10.19	<.001
Work	32.61±4.75	34.56±4.04	30.32±4.50	10.10	<.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양성평등의식이 여생도의 경우 1학년(136.17점), 2학년(134.16점), 4학년(132.76점), 3학년(131.24점)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남생도의 경우 1학년(121.47점), 4학년(119.60점), 3학년(119.15점), 2학년(115.04점)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여생도의 경우 남녀공학고등학교 출신이 평균 134.25점으로 여자고등학교 출신 평균 132.85점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남생도의 경우 남자고등학교 출신이 평균 118.98점, 남녀공학고등학교 출신 평균 118.72점으로 비슷하여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총 가족 수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여생도의 경우 총 가족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이 평균 135.67점, 4명이라고 응답한 군이 평균 132.63점 그리고 3명 이하라고 응답한 군이 평균 133.97점으로 세 군 간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남생도의 경우 역시 가족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의 평균이 118.27점, 4명이라고 응답한 군의 평균이 119.94점 그리고 3명 이하라고 응답한 군의 평균이 114.47점으로 세 군 간에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조부모·이성형제 유무에 따라서는 부모의 경우 여생도는 양쪽 부모 모두 있다고 응답한 군의 양성평등의식 평균이 133.43점으로 편부모 또는 부모가 없다고 응답한 군의 평균 135.53점 보다 낮았으나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생도의 경우 양쪽 부모 모두 있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119.17점으로 편부모 또는 부모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115.56점 보다 높았으나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조부모 유무에 따른 양성평등의식도 여생도의 경우 조부모와 함께 산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129.82점,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이 133.89점

으로 두 군 간에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생도의 경우 역시 조부모와 함께 산다고 응답한 군이 112.89점,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다는 다고 응답한 군이 119.17점으로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성형제의 유무에 따른 양성평등의식도 여생도의 경우 이성형제 있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134.43점, 이성형제 없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132.24점으로 평균 점수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생도 역시 이성형제가 있다고 응답한 군(118.62점)과 없다고 응답한 군(119.16점) 간의 평균 점수가 서로 비슷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여생도의 경우 상(134.44점), 중(133.13점), 하(133.11점)라고 응답한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남생도 역시 상(119.57점), 중(119.16점), 하(117.03점) 순으로 양성평등의식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 차이는 여생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양성 평등적’(134.63점), ‘여성 중심적’(131.18점), ‘남성 중심적’(130.79점) 이라고 응답한 순으로 양성평등의식 점수가 높았으나 세 군 간의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남생도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양성 평등적’이라고 응답한 생도들이 평균 120.26점으로 ‘남성 중심적’이라고 응답한 생도들의 평균 115.11점 보다 양성평등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38$).

<Table 3> Differences in Gender Egalitarian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23)

Characteristic		Gender egalitarianism							
		Female(n=228)				Male(n=195)			
		n	Mean±SD	F	p	n	Mean ± SD	F	p
Grade	1st	54	136.17 ± 10.99	1.59	.192	53	121.47 ± 13.92	2.16	.094
	2nd	62	134.16 ± 13.10			48	115.04 ± 12.58		
	3rd	54	131.24 ± 12.38			47	119.15 ± 13.13		
	4th	58	132.76 ± 12.25			47	119.60 ± 12.00		
High school	coed	120	134.25 ± 11.89	.73	.392	79	118.72 ± 13.02	.02	.892
	girls'	108	132.85 ± 12.72						
	boys'					116	118.98 ± 13.16		
Number of Family members	less than 3	34	133.97 ± 13.28	1.25	.288	30	114.47 ± 12.89	2.22	.111
	4	137	132.63 ± 11.92			139	119.94 ± 13.56		
	more than 5	57	135.67 ± 12.49			26	118.27 ± 9.40		
Living with Parent	both	211	133.43 ± 12.31	-.67	.500	179	119.17 ± 13.18	1.05	.291
	single or no	17	135.53 ± 12.15			16	115.56 ± 11.63		
Living with Grandparent	yes	17	129.82 ± 13.79	-1.31	.190	9	112.89 ± 9.23	-1.41	.160
	no	211	133.89 ± 12.14			186	119.17 ± 13.18		
Having Opposite sex siblings	yes	136	134.43 ± 12.29	1.26	.207	102	118.62 ± 12.08	-.28	.773
	no	92	132.34 ± 12.24			93	119.16 ± 14.15		
Economic status	high	80	134.44 ± 12.84	.29	.746	58	119.57 ± 13.42	.47	.624
	middle	121	133.13 ± 11.77			100	119.16 ± 13.70		
	low	27	133.11 ± 13.21			37	117.03 ± 10.74		
Parental nurture attitude	Equal ^a	165	134.63±12.09	2.17	.116	128	120.26±13.49	4.77	.010
	Gynocentric ^b	11	131.18±12.19			6	127.67±14.90	Scheffe : a>c(.038)	
	Androcentric ^c	52	130.79±12.65			61	115.11±11.09		

4.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의 관계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 집단자존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생도의 경우는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은 $r=.33(p<.001)$, 양성평등의식과 집단자존감은 $r=.28(p<.001)$,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은 $r=.65(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생도의 경우 또한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은 $r(p)=.24(<.001)$, 양성평등의식과 집단자존감은 $r(p)=.18(<.05)$,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은 $r(p)=.49(<.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of Gender Egalitarianism,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N=423)

Gender	GE	SE	CSE
	r(p)	r(p)	r(p)
Female (n=228)			
SE	.33(<.001)		
CSE	.28(<.001)	.65(<.001)	
Male (n=195)			
SE	.24(<.001)		
CSE	.18(<.05)	.49(<.001)	

GE=gender egalitarianism, SE=self-esteem, CSE=collective self-esteem.

V. 논의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 간에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은 여생도가 남생도보다 통계적으로 월등히 높았고 하위영역으로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성평등의식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가 있으며 여성이 양성평등의식이 더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들(김양희와 정경아, 1999; 유문숙 등, 2012; 김원경, 2008)과 일치하였다. 국내 사관생도와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여생도 평균 133.59점, 남생도 평균 118.88점으로 4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측정 한 유문숙 등(2012)의 연구에서의 여학생 평균 132.57점, 남학생 평균 118.68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 점수 또한 사관생도와 대학생 모두 교육영역, 직업영역, 가정영역, 사회·문화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서로 일치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대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Leiblum, Wiegel, Brickle, 2004)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평등적인 성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양성평등의식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남·녀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양성평등의식이 여생도에 비하여 낮은 남생도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가정과 사회·문화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의 향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특히 일반 남성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사관학교에서도 남생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의식을 정착화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을 살펴보면, 여생도와 남생도 모두 학년, 출신 고등학교, 총 가족 수, 부모·조부모·이성형제의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민정과 이은영(2011)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학년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일치하였다. 그리고 김은정(2001)의 연구에서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에서 차이가 없었던 점과는 맥을 같이 하나 형제 비율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에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남녀공학 여부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에서 차이를 보인 이소연(2005)의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은 학년, 출신 고등학교, 총 가족 수, 부모·조부모·이성형제의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이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오히려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여생도의 경우 ‘여성 중심적’, ‘양성 평등적’, ‘남성 중심적’이라고 응답한 생도들 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남생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양성 평등적’이라고 응답한 생도가 ‘남성 중심적’이라고 응답한 생도 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정(2001)의 연구와 남생도에서 만 일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전통적으로 아들에게 더 남자다움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으며, 남생도가 여생도에 비하여 양성평등의식도 더 낮게 나타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생도를 위한 양성평등의식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생도와 남생도에서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양성평등의식은 서로 정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간에 정 상관관계가 있다는 김명희(2006)연구와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우

민정, 이은영(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이 서로 정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김혜숙(1994), 김명아(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한다면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어서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사관생도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생도와 여생도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의 관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양성평등의식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양성평등의식은 여생도가 남생도 보다 높았고 4개의 하위 영역인 직업생활, 학교생활, 사회·문화생활, 가정생활 영역에서도 여생도가 남생도 보다 높았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의식 차이로 인한 남·녀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생도를 위한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의식은 학년, 출신 고등학교, 총 가족 수, 부모·조부모·이성형제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남생도인 경우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일반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남생도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생도와 남생도에서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 간에 각기 정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은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의 증진도 함께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 군 지도자로 성장할 사관생도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면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존감의 증진을 도모하여 장차 군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양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 집단자존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진실하고, 자세하게 응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관생도를 심층 면담하여 생활에서 사건 중심으로 양성평등 의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실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등 양성평등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근거로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남식, 변신원, 정원영, 조연숙(2009). 국방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연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
- 김광은(1997). 성통합 초기 단계에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 102-114.
- 김광은(1998). 남녀생도 생활적응과정 연구: 입교 후 1년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148-160.
- 김광은(2001). 성통합 교육을 통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13
- 김광은(2007).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공군 여성 장교들의 성역할 태도 변화: 사관학교 통합 첫해에 입학한 기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47-359.
- 김동원(2007). 한국여군 증가의 효과적 분석 :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3), 169-197.
- 김명아(2010). 집단자존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초심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명희(2006). 초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천안
- 김신애(2004). 남성의 성역할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양희, 정경아(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여성연구*, 57, 191-221.
- 김양희, 이수연(2002).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여성연구*, 20(2), 151-174.
- 김엘리(2012). 여군의 출현과 젠더 질서의 교란: 여성장교의 군인되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용화(2006).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평등 실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원경(2008).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부산.
- 김원홍, 오정진, 문미경, 김혜영(2003) *여군이 경험하는 군내 제도적 심리적 규범적 남녀평등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 김은정(2001).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대전.
- 김은희, 이정주, 김현영(2007). *군 조직 내에서의 성인지력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03-116.
- 노충래(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 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학회*, 12, 107-135.
- 독고순, 조영진, 신동현, 김윤정(2005). *여군의 직업성 및 모성 보호 증진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대전.
- 박혜원(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신은봉, 조성준, 김창희, 류지명(2004). *군인의 남녀평등의식 조사연구*. *군간호연구* 22. 1-29.
-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2004). *집단의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지각이 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집단과 지역집단의 경우*.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지*, 18(2), 107-135.
- 안순자(1997).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
- 양애경, 김둘순, 김진, 이선민, 강남식, 김철홍(2009). *군복 보급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서울.

- 오필환, 김광은, 윤유경(2002). 공군사관학교 남녀 생도 통합교육의 성과 분석. *공사논문집*, 50집, 293-322.
- 우민정, 이은영(2011). 예비 유아교사의 양성평등의식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1(2), 99-119.
- 유문숙, 박지원, 유미애(2012). 남녀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1), 14-22.
- 원은진(2005). *대학생의 비즈니스매너와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경나(1997).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
- 이동훈(2002). *군대문화의 남성중심성과 양성평등교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상호(2003). 공군사관학교 생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소연(2005). *청소년 양성평등의 실태분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주.
- 이지영(2008).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남.
- 이창신(2004). 공무원의 집단자아존중 척도 구성 및 집단자아존중감과 무사안일 형태와의 관계. *한국조직학회보*, 1(2), 1-24.
- 장동만(2008). *초중등 교원의 양성 평등 임용 방안 탐색*.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구.
- 전병제(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서울.
- 정경숙(2002). *여대생들의 미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삼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조경원(1999).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회*, 29, 3-17.

- 조기현(2004). *청소년 양성평등의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충남.
- 조성숙(1997). 군대문화와 남성, 남성과 한국사: 여성 한국사회연구편, 사회문화연구소.
- 조순영(2004). 간호사관생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술논문집*, 22, 256-278
- 한정자, 함인희, 조혜원, 문미경, 김동원(2004). 군대 내 양성평등 현황 분석 및 확산 방안 연구. 국방부 여군발전단. 서울.
- 홍규덕(2009). 군내여성인력의 역할 확대를 위한 4가지 쟁점. *국방정책연구*, 가을호, 25, 47-81.
- 황보주(2003). *군에서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남녀군인의 성인식과 복지요구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Abrams, D & Hogg, M. A. (1988). Comments on the motivational status of self-esteem in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4), 317-334.
- Ber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ussen, P. H., Conger, J. H., Kagan, J. (1963).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Maslow, A(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John & Sons. New York.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Leiblum S., Wiegel M., Brickle F. (2004). Sexual attitudes of US and Canadian medical students; the role of ethnicity, *gender, religion and acculturation*, *Sex Relation Ther* 18(4), 473-491.
- Luhtanen R & Crocker J.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 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60-67.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302-31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1982).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In: Tajfel, H. (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Paris, 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Reprinted in: *Cahiers de Psychologie Cognitive*, 1981, 1: 93-118.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중인 노명인 대위입니다.

본 설문지는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 집단자존감”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활용 될 것입니다. 한문제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본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중단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으면 본 연구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설문지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설문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일시 2012년 월 일 참여자 _____ (서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 : 박영숙

연구자 : 노명인

연락처 : 010. 5084. 3572

E-mail : iniina@hanmail.net

I. 다음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2.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3.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보다 크다.				
4.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5. 집안일에는 여자의 할 일과 남자의 할 일이 따로 있다.				
6. 아내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 행복하다.				
7.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8.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9.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				
10. 이혼 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11. 여자는 남자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12. 여자는 법학, 기계공학 등 전통적인 남성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13. 남녀 혼성 학급의 반장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14.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15. 리더십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16. 교장과 같이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더 적합하다.				
17.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18.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와 같은 기계,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19.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21.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22. 여자는 남자에 비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23. 여자가 너무 당당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는다.				
24. 여성의 외모 중시 풍조를 부추기는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25. 남녀 관계에서 여자는 너무 나서지 말아야 한다.				
26.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27. 여자들은 남녀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특혜를 요구한다.				
28. 텔레비전에서는 평등한 남녀 관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 주어야 한다.				
29.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30.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남자는 사귀는 여자보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31. 여자는 남자만큼 부학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32. 자격이 같은 남녀 직원 중 한명만 승진 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33.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34. 접수나 안내 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				
35.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을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36.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37.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보다 여자 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38.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39.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40. 남자는 업무 기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				

II.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느낌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쉽게 갖는다.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Ⅲ. 다음은 귀하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십시오.

(※ 본 질문지에서 귀하 속한 사회 집단은“사관생도 집단”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사회집단을 무능한 사회집단이라고 본다.					
2.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사회집단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3.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사회집단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속한 사회집단을 높이 평가한다.					
5.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6. 나는 종종 내가 속한 사회집단에 나 자신이 쓸모없는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7. 나는 가끔 내가 이 사회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8. 나는 내가 속한 사회집단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9.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사회집단에 별로 공헌할 바가 없다고 느낀다.					
10. 나는 내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이다.					
11. 나는 내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협조적인 구성원 중 하나이다.					
12.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사회집단이 가치 없다고 느낀다.					
13. 이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개념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14. 내가 이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내가 속한 사회집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나의 의식에 중요하지 않다.					
16. 내가 속한 사회집단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반영해준다.					

IV.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 또는 응답하여 주십시오.

◎ 일반적 사항

1. 성별	① 여		② 남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출신 고등학교	① 남녀공학		② 남자고등학교	③ 여자고등학교

◎ 가족사항

4.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 가족 구성원에 체크하시고, 형제가 1명 이상일 경우 몇 명인지 기입해 주세요.				
	총()명	부()	모()	조부()	조모()
		여자형제()		남자형제()	기타()
5. 가정의 경제적 수준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6. 부모의 양육태도	① 양성평등적		② 여성 중심적		③ 남성 중심적

*****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Cadets' gender egalitarianism,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Noh, Myung In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Directed by Professor Park, Young Sook.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levels of gender egalitarianism,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of cadets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comprised of the measurement tools for gender egalitarianism, self-esteem, collective self-esteem,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om 423 cadet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analysis of the results, positive correlations exist among the cadets' gender egalitarianism,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Specifically, female cadets scored higher than male cadets in gender egalitarianism. However, cadets' gender egalitarianis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ly the male cadets showed differences in gender egalitarianism related to parental nurture attitud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developed making a gender equality cultur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cade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improve the male cadets' gender egalitarianism. More importantly, parental nurture attitude should be considered an affect factor in male cadets' gender egalitarianism. By improving cadets' gender egalitarianism,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could be also enhanced.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은 저에게 전공 지식의 확장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잊지 못한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 다면 길다 할 수 있는 저의 아름다운 2년간의 경험과 배움을 함께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 2년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제 몫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게 이 모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준 육군과 간호병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각 사관학교 관계자 여러분과 설문에 성실히 답해준 사관생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박영숙 지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따뜻함과 너그러움으로 학문에 대한 지식 이상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정재원 교수님, 방경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논문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신혜경 예비역 준장님, 박명화 학교장님, 최경혜 병과장님, 윤원숙 의료관리처장님, 심현옥 교수부장님, 박계화 생도대장님, 유명란 간호학과장님 그리고 정유미 소령님, 김주아 대위님과 몇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성식사를 함께하며 서로 기쁠 때나 힘들 때 같이 울고 웃었던 지영이, 윤아, 윤희연니와 늘 따뜻하게 조언해주신 황신우, 오희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며 서로 힘이 되어준 다은이, 계영이, 부족한 후배를 늘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신 김혜원, 이진이, 박진영, 이정민, 한혜리, 서유미 선배님 감사합니다.

늘 격려해주신 이승용 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순탄히 석사과정을 마무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 슬플 때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양가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늘 딸처럼 아껴주시고, 늘 제 공부와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힘이 되어주신 우리 시누이 윤정언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딸이 최우선이셨던 사랑하는 엄마, 아빠, 당신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언제나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누나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내 동생 호엽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준 사랑하는 우리 딸 두희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나의 반쪽 남편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